

보도자료



K I H A S 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<https://kihasa.re.kr>

보도내용	□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제445호 발간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유형화와 지원 방향
분 량	총 5매(그림 3종, 표 1종 포함)
배포일시	2024년 3월 25일(월)
보도일시	즉시

장기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가족원 지원 확대 필요

- 장애인 가족은 돌봄 부담으로 신체적·심리적 소진 경험하고 장애 자녀 미래에 불안감 호소
-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유형화 결과 '능동적 대처형', '장애 자녀 미래 고민형', '지원 촉구형' 등 3개 유형 도출
- 장애인 돌봄 가족원의 건강 지원·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·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·신뢰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마련 시급해

※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,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.

※ 이 글은 이민경 외(2021), 『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- 대안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』의 일부 내용을 수정·보완·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이하 '보사연', 원장 이태수)이 『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』 제 445호 '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유형화와 지원 방향'을 발간했다.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민경 부연구위원이다.
- 이민경 부연구위원은 “장애인 가족은 장기간의 돌봄 제공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·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, 특히 장애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- 그는 “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한 결과, 능동적 대처형, 장애 자녀 미래 고민형, 지원 촉구형 등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

다”며, “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 가족원 대상 건강 지원 체계 구축,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의 보편화,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장기적 대책,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”고 강조했다.

■ 아래는 이슈엔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.

주요 내용

- 장애인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은 심리·사회·경제적 부담을 포괄하는 것임. 이 글에서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해 유형화하고 유형별 돌봄 부담의 경향을 제시함.
-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‘능동적 대처형’, ‘자녀 장래 고민형’, ‘지원 촉구형’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. 공통되거나 유형화할 수 있는 돌봄 부담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. 첫째, 장애인 돌봄 가족원의 건강을 점검·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. 둘째, 장애인 가족 서비스의 보편적 지원 및 위기 대응 지원이 필요함. 셋째,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대처 방안이 필요함. 넷째, 장애 자녀의 자립에 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.

◇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

-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장애인 특히,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이 겪는 심리적·사회적·경제적 부담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임.
-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, 장애 자녀 돌봄 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'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'으로, 이는 돌봄 정보 부족, 자녀 취업 문제, 미래 비용 부담 등을 제치고 1순위로 나타났음(그림 1).

[그림 1] 장애 자녀 돌봄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



주: 만 20세 이하 장애인 기준.

출처: "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"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<https://data.kihasa.re.kr/kihasa/kor/databank/DatabankList.html>

◇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

- 연구진은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주 돌봄 가족원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, 이들의 돌봄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여 분석함.(그림 2)
- 장애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부모 면담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돌봄 부담을 반영하는 31개 진술문을 도출함.(표1)
- 다음으로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25명에게 31개 진술문을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비추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나열하게 함.
- 응답자들의 분류 결과를 토대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유사한 인식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해석함.

[그림 2]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과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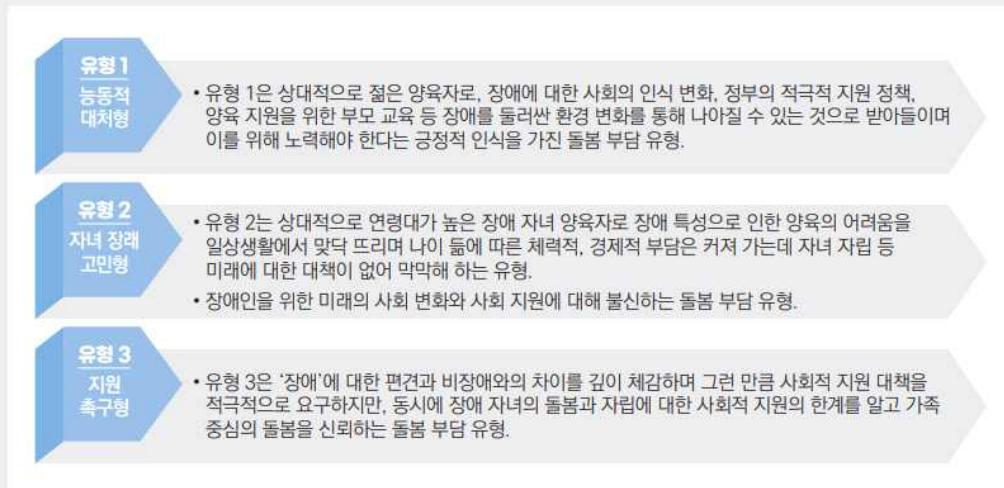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에 대한 진술문 구성을 위한 중분류 내용

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- 중분류	
• 부모로서 비장애 형제에 대한 심리적 미안함	• 어머니에게 쏠리는 돌봄 부담(건강 부담, 가족 안에서 돌봄 부담을 나누는 것의 어려움)
• 장애에 대한 수용	• 장애인 부모가 된 후 사회적 관계의 고립, 단절
• 지원받는 방법: 자조모임, 가족 지원	• 심리적 어려움(정신과적 치료)
• 사회적 인식	• 장애 자녀를 양육할 때 기대하는 사회적 지원
• 자녀의 장애에 대한 절망	• 사회적 지원의 방향성(미래)
• 사회적 지원에 대한 불만	• 어머니의 경력 단절(내가 없음): 자녀와 분리된 삶이 없음
• 장애 자녀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(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)	• 미래 불안
• 장애에 대한 대처로 치료에 전념하는 현실	• 기타

출처: “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”, 이민경, 오다은, 김성희, 김용진, 이동석, 심석순, 이현민, 2021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p. 230-231.

-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‘능동적 대처형’, ‘장애 자녀의 미래’, ‘지원 촉구형’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, 유형별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향을 제시함.(그림3)

[그림 3]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의 유형별 분석



출처: “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”, 이민경, 오다은, 김성희, 김용진, 이동석, 심석순, 이현민, 2021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p. 238-246.
내용을 요약·정리함

◇ 시사점 및 제언

□ 연구 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함.

- 장애 돌봄 가족은 장기간의 돌봄 부담으로 신체적·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므로, 이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.
- 장애 자녀 돌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적 개입 확대가 요구되나 지원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므로, 장애 돌봄 서비스의 보편화와 질적 제고가 필요함.

□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언함.

- 첫째, 장애 돌봄 가족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적·심리적 개입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.
- 둘째, 장애인 가족 대상 휴식 지원 서비스 등을 장애 유형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하고,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함.
- 셋째, 장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하고,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내실화하는 등의 장기적 정책 추진이 요구됨.
- 넷째, 성인기 진입하는 장애 아동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계획과 현실적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※ 이슈엔포커스 제445호 원문 보기

<https://repository.kihasa.re.kr/handle/201002/44863>